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19:00		06:30 (새 벽)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0:30 (교 중)	
평 일		12:00 (낮)		12:00 (초등부 소성전)	
		16:00(국제미사) 19:00 (청 년)		21:00 (찬양미사)	
예비자교리	유아 세례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일요일 (초등부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 8/15(수)

06:30	10:30	12:00(초등부)
-------	-------	------------

※ KYD(한국청년대회) 폐막미사 참석으로 저녁 청년미사가 없습니다.



8월 15일은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평생 동정하신 성모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로마 전례력에 있어 가장 큰 축일 중의 하나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축일**입니다.

● 알 림

- 목요일 10시 미사 - 봉 성 체 / 구역미사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미사	8월 쉽니다.
---	---------

● 祝 세례식 및 만남의 시간

세례자와 대부·대모 만남	8/5(오늘)	10:30 미사후~16:30
세례식	8/12(일)	10:30 교중 미사중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M.E 월례모임	8/5(오늘) 교중미사 후	6교실
· 위령봉사회 월례모임	8/5(오늘) 12시	보스코홀
· 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	8/9(목) 저녁8시	침터방
· 꾸리아 월례모임 1Q	8/12(일) 오후 2시	강 당
2Q	8/12(일) 오후 12시	강 당
3Q	8/12(일) 오후 2시	소성전
· 제대회 월례모임	8/16(화) 오전11시	1교실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안내 *

일 시 : 8월 7일(화) ~ 11월 14일(수) 저녁7시 미사 후
장 소 / 준비물 : 피정방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책

* 전신자 성경쓰기 / 성경 공부 *

- ※ 전신자 성경쓰기
- 기 간 : 그리스도 왕 대축일(11/25)까지
 - 봉 헌 : 루가복음까지 필사하신 성경노트를 성모승천 대축일(8/15) 모든 미사에 봉헌합니다.
(2주 후에 사무실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 ※ 성경공부 (성경, 하느님과 인간 이야기)
- | | |
|------|------------|
| 8/10 | 여름 방학 (휴강) |
| 8/17 | 옴기, 시편 |
- (성경공부 동영상 : <http://guro3cc.com> → 성당소식 → 동영상자료)
▶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청소년 분과

청년 여름 캠프	
일 시	8/18(토) ~ 8/19(일) 1박2일
장 소	딱다구리 수련원 (경기도 양주시)
대 상	구로3동 모든 청년 참 가 비 35,000원
문 의	곽정희 마리스텔라 (010-3785-8617)

* 여름철 미사 참례시 복장과 자세 *

- 성당에 올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 슬리퍼, 반바지, 짧은치마, 소매 없는 옷은 피합니다.
- 일찍 온 순서대로 앞좌석 안쪽부터 앉습니다.
- 미사 전에 핸드폰은 미리 꺼둡니다.
- 성가책, 주보 등으로 부채질하는 것을 삼가 합니다.
- 성당에 올 때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합니다.

* 교무금에 대한 당부의 말씀 *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무금은 성소자 양성, 교회 운영과 관리, 사회복지 사업, 선교사업과 해외 원조사업을 위한 기금 등으로 쓰이며 반드시 내야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아직 금년(2018년도)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으신 분은 책정과 함께 납부하여 주시면 본당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바랍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 협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원어민 영어 강좌 *

- 대 상 : 초·중등부 학생
- 시 간 : 매주 토요일 10시~11시, 12시
- 모 집 : 초등부반, 중등부반 각 10명
- 수강료 / 문 의 : 월5만원 / 010-6738-2200

● 태중 아기 축복식

- 일 시 : 8/18(토) 저녁 7시 토요일미사 중
- 대 상 : 소중한 생명을 가지신 임산부
- 접 수 : 미사 전까지 사무실에 접수 (가능하실 때)

● 다음 주일(8/12) 청소

청 소	11구역
-----	------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8/5	이은희	심재순 서윤석 유숙중 오성환	최승일 김강자
8/12	유명진	조훈환 신종구 김현철 최상림	하재민 손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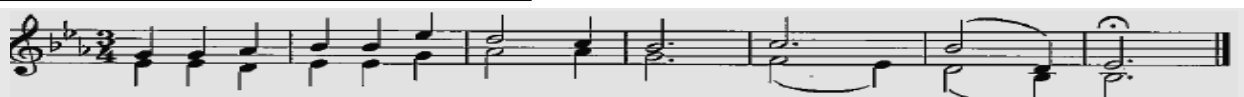
● 성체 분배자 명단

날짜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8/5	장인홍	최창열 박형순 최창열 손상민	박용환 최승일 박승환			
8/12	장인홍	박승환 최상남 최석준 김광수	박형순 최승일 장인홍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 8,590,000원
- 주일헌금 6,043,000원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 ... 1,943,500원
- 감사헌금 장영수 5만원 김영주 5만원 임연례 5만원
최희옥 5만원

회답송



주 님 은 하 늘 의 양 식 을 주 셧 - 네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써 주세요.)

129.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 몇 명이나 두어야 하나요?

부부는 하느님이 주시는 자녀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부부가 생각 없이 많은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는 최근의 연구 결과처럼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와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부성애와 모성애를 책임질 수 있는 여부를 고려하여 자녀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육체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자연적 임신 조절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 출산의 시간간격과 그 수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부부의 몫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이미 태어난 자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고려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행사할 수 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130. 가족 정책이 부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가족 정책은 그 공동선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자녀를 더 낳거나 덜 낳는 데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는 반드시 인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에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다주는 조치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족 정책은 자극을 줄 순 있지만 자녀의 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부부에게 맡겨야 합니다. 아무도 이런 결정의 자유를 부부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131. 왜 국가와 사회는 가정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나요?

가정이 눈에 띄지 않고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사회를 위해 중요한 업적을 실행하는 것은 가정의 고유한 특성에 근거합니다. 사회와 국가가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것은, 가정이 가장 작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서 가족 정책이 제정됩니다. 자유 국가는 능력 있는 부모가 자녀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강요할 수 없으며 국민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신의 미래를, 자유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파울 키르히호프). 많은 설문 조사에서 국민들은 가정이 지닌 매우 높은 가치를 늘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가족 정책의 조건들을 갖추으로써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조건에서 가정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132. 국가와 사회는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사회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중요하고 특별한 것으로 인정하고, 유일무이한 가치인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 내에서 친목과 화목을 증진시키는 데서 시작하여, 모든 측면에서의 인간의 생명, 특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까지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국가를 통한 가정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나 국가가 경제적 혹은 이념적인 이유에서 가정의 고유한 사명을 떠맡거나, 그 사명을 축소하고 사회적 차원으로만 제한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정책은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가정에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고유한 사명을 인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